

李白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기존 연구의 비교 및 李白詩를 통한 아내와 자식에 대한 고찰

서 용 준
(경희대학교)

1. 序論

李白은 중국고전시가 작가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의 하나이다. 서기 8세기경에 활동하던 사람¹⁾에 대해 오늘날 그의 생애와 작품의 구체적 상황과 연대를 어느 정도 추측이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중국 고전 시인과 비교해서 대단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현재의 상식에 반하거나 믿기 힘든 경우도 많고 그 사실을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것도 많다. 이백은 본인 스스로 ‘추방당한 신선(謫仙)’²⁾이라 주장하며 일상적인지 않은 행동과 행적을 과시하였다. 그래서 더욱 다른 역사 자료가 부족하다.

이백은 시의 구할 이상이 여자나 술 이야기인 불량한 인물이라는 후대³⁾의

-
- 1) 異說이 있으나 이백은 서기 701년에 태어나 762년에 죽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 2) ‘하늘에서 추방된 신선(謫仙)’이라는 말은 賀知章이 이백의 시를 보고 한 감탄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현재 오직 이백 본인의 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방된 신선’이라는 감탄이 이백 본인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 3) 宋의 王安石.

도덕적 평가가 결국 그의 작품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되는 인물이다. 현재 전해지는 그의 시문 작품들에 등장하는 이백은 가는 곳 마다 여자가 있는 술집을 가거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남의 여자를 부러워하고, 이웃집 여자를 넘보기도 하면서 늘 술과 함께 하는 風流 男兒의 본모기를 보인다. 시에서 보이는 그의 이러한 생활 태도 또는 시작 태도는, 그것이 실생활과 동일하든 아니든, 비슷한 정치적 희망을 가졌던 비슷한 시기의 대시인 杜甫의 생활 또는 시작 태도와 확연하게 다르다.

그런 이백이 과연 어떠한 結婚史를 가졌으며 어떠한 家庭을 경영하였고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다른 시인이나 문학가의 결혼사, 가정변천사, 가족관계를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그의 개인적인 성격,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문학적 성취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거나 단편적인 개인)에게 그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식)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작업이다. 다만 漢詩의 작가들은 좀처럼 가정사와 같은 개인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문제에 대해 시로 남기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이백은 여자와 술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제재를 거리낌 없이 시로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타 시인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백의 1천 수가 넘는 현존 한시 즉 李白詩 가운데에 이백의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 등의 가까운 가족을 언급한 시는 대략 20수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여러 이유를 추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이백시가 이백의 가족, 아내와 자식에게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의 가정생활과 가족 관계가 이백시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백의 문학관 형성에도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정 시인(문학가)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 등에 대한 연구가 그 시인(과 문학 작품과 문학관)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 작업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백은 이러한 전통적이거나 또는 현대적인 연구의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백이나 이백시를 연구할 때 이백의 가정사나 가족사를 연구하는 것은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다.⁴⁾ 이백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점인지 밝힐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이백시의 형성 또는 완성에 이백이 아닌 다른 개성의 개입 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백의 가족에 대한 연구 또는 검토 또한 계속되었다. 그것은 이백시에 대한 해석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백 본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였다.

전통적인 시학의 관점에서 시에 대한 평가는 시인에 대한 평가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이백이 술과 여자에 경도된 부도덕한 인물이라면 이백시 또한 부도덕한 시이다. 이백이 부도덕한 인물이 아니라 개인 개성의 자유를 추구한 탈사회적인 인물이라면 이백시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이백의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이백시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니 이백시를 평가하기 위해, 이백시 안에 들어있는 이백의 인간성, 도덕적 자질 등을 추출해서 이백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이백시를 평가하는 순환적이면서도 결과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작업을 행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백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백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이백의 불가사의한 내면 심리 세계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은 그에게 밀도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백의 결혼사, 가정사, 가족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그 근원적 원인인 이백이라는 인간에 대해 천착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
- 4)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백의 先朝, 이백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비교적 많았고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개인의 역사를 탐구할 때 먼저 혈통에서 그 계보를 찾으려는 중국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크다.
 - 5) 현재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련된 이백시의 해석과 주석에서 개별 연구자가 이백의 가족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일부를 밝힐 뿐이다. 개론서나 평전들은 이러한 해석과 주석들에 근거해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해 설명한다.

2. 李白의 아내와 자식의 정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전집의 서문이나 비문의 내용 등이다. 『前唐書』나 『後唐書』의 열전에는 그의 아내나 자식에 대해 기록이 없다. 대체로 아내와 자식에 대한 문제는 李白 본인과 친밀한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한 인사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한 기록으로 여기지 않은 것 같다.

대략 天寶 13년(754년) 즈음에 魏顥가 이백의 명성을 흠모하여 먼 길을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 위호는 먼저 東魯로 갔다가 李白의 아들만 만나고 다시 梁園(대략 開封 부근)으로 이백을 찾아갔다.⁶⁾ 그 곳에서 이백을 만나 깊은 교류를 맺고 李白으로부터 후일을 부탁받기까지 하였다. 그 뒤 上元 연간 말(761년)에 이백의 시문 원고를 얻어 여러 해를 보관하다가 『李翰林集』을 만들고 그 서문을 썼다. 그 서문에 이백의 결혼사와 가족사가 약간 나온다.

이백은 처음 허씨와 결혼하여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은 명월노라 했다. 딸은 시집을 갔다가 죽었다. 다시 유씨와 결혼했는데 유씨가 떠났다. 다음에 노당의 한 부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파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종씨와 결혼했다. … 나에게 말하길 “그대는 나중에 반드시 천하에 크게 이름을 드러낼 것이니, 노부와 명월노를 잊기 마시게.”⁷⁾

이백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또한 이백이 그를 從叔으로 불렀을 것이라는 평판이 있는 李華는 이백이 죽은 다음에 『故翰林學士李君墓誌并序』를 썼다. 그 안에 이백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이 글에 대해

6) 天寶13년(754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魏顥의 〈금릉에서 한림 이적선에게 수창하다(金陵酬翰林謫仙子)〉 시를 참조.

7) “白始娶于許，生一女，一男曰明月奴。女既嫁而卒。又合于劉，劉訣。次合于魯一婦人，生子曰頗黎。終娶於宋。… 謂余，‘爾後必著大名于天下，無忘老夫與明月奴。’” 王琦，『李太白全集』，1451-1452쪽에서 재인용. 위호의 글에는 誤脫字나 진위가 의심스러운 글자 그리고 미심쩍은 구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백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록임에도 완전한 신뢰를 받지는 못한다. 10년 이상 이후의 기억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宗氏를 宋氏로 잘못 쓴 문제도 있다.

王琦가 그 내용이 절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한 것처럼 이화는 이 글을 쓰면서 그 내용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아들이 있는데 백금이라 하고, 천성이 평정심을 매우 잘 유지하고 어린 데도 분별력이 뛰어나 공의 덕을 많이 이었으니 반드시 장차 그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⁸⁾

이백이 죽은(762년) 이후 55년 뒤인 817년에 范傳正⁹⁾은 이백의 후인을 찾다가 이백의 손녀들을 만났다. 그녀들의 부탁으로 이백의 묘지를 이장하고 묘비문을 남겼는데 그 내용에 이백의 아들과 손자에 관한 것이 나온다.

공의 손녀가 상자 안을 찾으니 공의 죽은 아들 백금이 손으로 쓴 글 수십 줄이 나왔고, ….

3, 4년을 찾아서 손녀 두 사람을 찾았다. 하나는 진운의 아내이고 하나는 유권의 처였는데 모두 일반 백성이었다. … 그 연유를 물으니 말하길, “아버지 백금은 정원8년(792년)에 녹봉을 받지 않고¹⁰⁾ 돌아가셨습니다. 오라비가 하나 있는데 집을 나가 떠든 것이 12년으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8) “有子曰伯禽, 天然長能持, 幼能辯, 數梯公之德, 必將大其名也已矣.” 王琦, 위의 책, 1459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 구절은 王琦의 구두를 따른 것으로 松浦友久도 이러한 구두를 따랐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구두는 그 해석이 많이 억지스럽고 한문의 구조도 이상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詹鏞이 다른 구두를 주장한 이후로 최근에는 아들이 둘인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자가 많다. 다음과 같다. “아들이 있는데 백금과 천연이라고 하고 큰 아이는 평정심 유지를 잘하고 작은 아이는 분별력이 뛰어나서 … (有子曰伯禽, 天然, 長能持, 幼能辯 …)” 이러한 해석에 따라 李華가 말한 이백의 아들이 伯禽과 天然의 둘이라는 설이 최근 유력하다.

9) 범정전은 생졸년이 불명하나 唐 德宗 貞元10년(794년)에 進士가 되었고 817년에는 觀察使였다고 한다. 묘비의 내용에 따르면 범정전은 자신의 아버지 范倫이 과거 이백과 潯陽의 주연에서 주고받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와 이백 사이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다. 범전이 정확히 언제 이백과 심양에서 교류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범정전이 817년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는 있겠다.

10) 비문의 원문에는 ‘不祿’이라고 되어있다. 왕기는 『禮記』를 인용하여 선비가 죽는 것을 ‘녹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였다. 벼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관직이 없으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일반 백성이 되었으며 오라비가 있지만 돌보지 않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¹¹⁾

아버지 伯禽(백금)이 죽자 일반 백성이 된 두 여인은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가난하게 살다가 농부의 아내가 되었고 세금 낼 형편도 못되어 관의 통보도 두려워해서 몇 년 만에 할아버지 소식을 찾는 사람에게 나섰다고 한다. 범전정은 그녀들을 위해 할아버지 이백의 묘를 이장하고 다시 그녀들을 士族에게 개가시켜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그녀들은 부부의 인연은 운명이니 가난하다고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 뒤 26년이 지난 843년에 비서랑을 하던 裴敬이라는 사람이 이백의 묘에 들러 성묘를 하고 제사를 하였다고 한다. 묘지기에게 물으니 농민에게 시집간 이백의 손녀들은 묘에 오지 않은 것이 5, 6년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읍재에게 묘지기의 노역을 면해주어서 묘 관리에 전념하도록 부탁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¹²⁾

- 1 - 李白의 아내에 대하여

이백의 아내에 대한 이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록, 즉 역사적 기록은 위호의 것 밖에 남은 것이 없다. 인용하지 않은 위호의 기록에 이백은 어디서나 여인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니 혹시 그가 듣지 못해 모르는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754년 이후 이백을 보지 못해서 그 뒤의 결혼사도 모를 수 있지만³⁾, 일반적으로 위호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백은 4번 결혼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

11) “公之孫女搜于箱篋中，得公之亡子伯禽手疏數十行，… 凡三四年，乃獲孫女二人。一爲陳雲之室，一爲劉勸之妻，皆編戶疇也。… 問其所以，則曰，‘父伯禽，以貞元八年不祿而卒。有兄一人，出遊一十二年，不知所在。父存無官，父歿爲民，有兄不相保，爲天下之窮人。…’” 왕기, 앞의 책, 1462-1467쪽에서 재인용.

12) 裴敬, 『翰林學士李公墓碑』 왕기, 위의 책, 1469-1474쪽.

13) 위호가 宋과 宗을 혼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과 착각했거나 宗氏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다. 본 논문 주석 7번 참조.

나 이백 본인의 시문에는 단지 첫 번째 許氏(허씨)와의 결혼과 마지막 宗氏(종씨) 아내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나온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일본의 학자들이 의구심을 표시한 이후 근래에는 첫째와 넷째 부인과의 결혼만 정식 결혼이고 둘째 유씨, 셋째 노땅의 한 부인¹⁴⁾과는 정식 결혼이 아니고 동거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 일종의 첩실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백이 첫째 부인 허씨와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해선 이설이 많으나 대체로 727년으로 보는 학자가 많다. 이백이 쓴 『안주의 배장사에게 올리는 글(上安州裴長史書)』에 ‘허재상의 집에 불려가 빈 다음 손녀를 아내로 맞아 지금까지 삼년이 되었다(許相公家見招, 妻以孫女, 便迹于此, 至移三霜焉)’고 나오는데 같은 글에 또 그의 나이가 30년이 되었다고 또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이 3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견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백이 결혼한 나이를 23살에서 32살까지 서로 다르게 계산한다.

출신 소속이 불명하고 거주도 부정한 이백이 어떻게 지역 유지인 명문가의 사위가 될 수 있었는지 현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해당 지역 관리에게 간알할 때 응당 장인의 소개나 후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니 결혼 사실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백과 결혼한 허씨가 이백보다 나이가 많았다던가, 재혼이라던가, 이백이 참으로 비범했다던가 등의 추측도 있다. 근래에는 ‘불러가서 빈 다음 손녀를 아내로 하게 했다’는 표현으로부터 이백이 데릴사위¹⁵⁾로 허상공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도 많다. 장래의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집안에 귀속시켜 후사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설령 데릴사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백은 약 10년간¹⁶⁾을 허씨 친정의 다양한 원조속에

14) 본래는 ‘노땅의 한 여인’이라고 풀어서 가리켜야 하나 연구자들은 마치 고유명사처럼 ‘노일부인(魯一婦人)’이라고 부른다. 성도 알 수 없는 이 여자에 대해 이백과 같은 성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15) 중국 고대의 데릴사위의 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서 일종의 잠깐 동안의 처가살이부터 양자 입적까지 다양하다. 이백이 데릴사위였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6) 이백은 「秋于敬亭送從侄崑遊廬山序」에서 ‘酒隱安陸, 蹉跎十年’이라고 하였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백이 언제 안륙을 떠났는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견해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백에게 안륙에서의 생활이 대체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은 분명한 것 같다.

安陸(湖北省)에 가정을 두었는데, 그 뒤에 언제 안륙을 떠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 전과 비슷하게 이백은 중국 각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이백은 대략 735년부터 740년 사이에 안륙을 떠나서 兗州(山東省)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왜 그가 거주지를 옮겼는지 그 이유는 모른다. 허씨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허씨와 함께 옮긴 다음에 허씨가 죽었다는 설도 있고 허씨와 이혼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로 거처를 옮겼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741년 또는 42년에 장안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會稽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어디로 집을 옮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로 같이 살았다는 劉氏(유씨)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다만 추측만 가능하다. 이백이 허씨와 결혼했을 때 東魯 지역이나 宣州(安徽省) 지역을 돌아다니다 현지에서 동거했을 것이라는 추측부터 장안으로 가기 전 회계에서 만난 여인일 것이라는 추측까지 있다. 위호의 기술에 따르면 유씨가 주동적으로 이백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백이 술만 좋아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거의 집에 오지 않았으며 관리가 될 희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가 오판했거나 또는 유씨 자체가 성품이 부족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백이 장안으로 가면서 마치 함께 갈 것처럼 유씨를 끌어들이었지만 사실은 南陵(주로 安徽省으로 여김)에서 아이들을 돌보길 바랐기 때문에 떠났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백은 유씨에 대해선 성도 말한 적이 없으나 간혹 이백시에서 누군지 밝히지 않고 무작정 욕하는 여인이 유씨가 아닐까하는 추측도 있다.

세 번째로 같이 살았다는 魯一婦人은 위호에 따르면 아들(파려)까지 낳았다고 하지만 역시 이 여인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이백도 이 여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같이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백이 장안에 벼슬하러 가기 전부터 살았을 지도 모르고(735년 이후로) 또는 장안에서 쫓겨난 다음에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라고 했으니 네 번째 부인 보다는 먼저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네 번째 부인을 만나기 전에 헤어졌는지, 또는 일종의 첩으로 또는 두 집 살림으로 살았는지도 역시 모른

다. 이백이 장안에 있을 때나 그 뒤 떠돌아다닐 때 동노에서 이백의 전처 아이들과 자신의 아들을 돌보며 살았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 전처의 아이들은 이백이 다른 곳에 맡기고 노일부인은 자기 아들만 데리고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이백이 동노에 남겨둔 아이들의 친어머니라는 추측도 있다. (아마도 유씨와 함께) 평민 또는 그 이하의 출신으로 생각되는 노일부인은 다만 성격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결국 安史의 난 이후 이백이 동노의 자식들을 피신시키려 시도한 이후로는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넷째 부인인 종씨는 이백의 아내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재감이 강하다. 정확하게 언제 처음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는 역시 분명하지 않으나¹⁷⁾ 첫째 아내였던 허씨보다 더 유력한 선조(宗楚客)의 집안 출신으로 당시 가문의 세력도 더 좋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좋은 집안 출신으로 학식까지 갖춘 종씨가 왜 이백과 결혼했는지는 역시 알 수 없다.¹⁸⁾ 보통 이백과 종씨가 도교를 믿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백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아내들과 달리 종씨에게는 직접 써 준 시가 여러 수 있고 그녀의 가족에게 쓴 시도 있으며 다른 사람(元丹丘)에게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한 시도 있다. 종씨의 정체에 대해서

17) 이백이 장안에서 벼슬을 하던 742년에 이미 장안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이백이 두보 등과 산동 지역 등을 돌아다니던 745년경에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이백이 양원이나 금릉을 주로 돌아다니던 749년 이후에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대체로 적어도 751년에는 이미 결혼했을 것으로 이해한다.

18) 오직 본 논문의 필자의 개인적인 추측은 종씨가 적어도 딸이 하나 있는 재혼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백이 원단구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한 『題嵩山逸人元丹丘山居并序』(天寶9년 750년 이후에 쓴 것으로 추정)에 온 가족이 원단구를 찾아왔다는 내용과 함께 “아내는 난새를 타는 걸 좋아하고 딸은 학을 타는 걸 좋아한다네. 손을 잡고 신선을 방문하니 이로부터 금단을 연마할 것이네.(拙妻好乘鸞, 嬌女愛飛鶴. 提携訪神仙, 從此煉金藥)”이라는 구절이 있다. 보통은 여기서의 딸(嬌女)을 이백 본인의 딸(平陽?)로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부잣집 딸과 재혼한 이백이 아무리 오랜 친구인 도사에게 도교를 신봉하는 아내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해도 전처소생의 딸과 서로 손을 잡고 산을 오르게 할 정도로 뻔뻔하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이 딸이 종씨의 소생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종씨가 부자 재혼녀라는 추정에 대한 그 외의 근거는 없다.

도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재상 李林甫의 딸과도 친분이 있었고 후일 이백의 구명과 사면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이백에게는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있던 것 같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결혼도 이백이 데릴사위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이백이 아내 종씨에게 준 시에는 애정의 내용이 주가 되는 시(가령 「秋浦寄內」)도 있으나, 그가 永王璘의 군대에 참여했다가(756년) 패전으로 체포된 뒤에(757년) 감옥에서 아내에게 쓴 시와 유배지로 떠나면서 아내에게 쓴 시는 분명히 이전의 애정시와 내용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그녀가 이백과 언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설이 있으며 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백은 유배지로 떠날 때(758년)까지는 아내와 그녀의 형제에게 시를 썼는데 사면(759년)을 받은 뒤로는 시문이 없다. 종씨는 유배지로 떠나는 도중(潯陽烏江)까지 이백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로도 이백과 같이 갔는지, 아니면 이백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던 豫章에서 종씨가 기다리고 이백이 760년쯤에 찾아왔는지, 또는 종씨는 고향인 양원으로 돌아갔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이백은 사면을 받은 다음 宣州 등의 지역을 떠돌다가 761년 李光弼의 東征軍에 참여할 목적으로 길을 나섰고 도중에 병을 얻어 當塗에서 762년 겨울 죽었다. 이백이 죽을 때 종씨가 곁에 있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761년에 이미 이혼을 하고 집에 돌아갔거나 도사 수행을 하러 갔을 것이라는 설도 있고, 이백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왔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2- 李白의 자식에 대하여

李白의 자식에 대하여 위호는 허씨가 1녀 1남을 낳았고 노일부인이 1남을 낳았다고 하였다. 1녀를 먼저 썼기 때문에 보통 장녀와 차남으로 이해한다. 이백이 자식들에게 직접 쓴 유일한 시¹⁹⁾에도 누나와 남동생이 나온다. 다만 이 차남의 이름을 위호는 明月奴(명월노)라고 했는데 이백의 아들에 대한 다른 기록이나 이백의 시문(직접 아이들에게 쓴 시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쓴 시에서 아들에 대해 이야기한 경우)에는 백금이라는 이름만 나온다.²⁰⁾ 그래

19) 「寄東魯二稚子」.

서 이 명월노와 백금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견해가 여럿 있었다.

또한 「寄東魯二稚子」시에는 딸의 이름이 平陽(평양)으로 나오는데 이 딸이 허씨와 낳은 딸인지 아니면 다른 딸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노일 부인이 낳았다는 頗黎(파려)는 아예 존재 자체를 고증할 바가 전혀 없는데 단지 기록의 맥락에 대한 추측과 판단으로 그의 정체를 해설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 외에 李華가 쓴 墓誌의 독해방법에 따라 ‘天然’이라는 이름의 아이도 등장하는데 만약 분별력이나 언변이 뛰어났던 천연이 존재했다면 그가 어느 부인의 아들인지도 문제이다.

정리하자면, 이백의 자식으로 거론된 이름이나 인물은, 위호가 말한 허씨의 큰 딸, 작은 아들 명월노, 노일부인의 아들 파려, 이백이 직접 말한 큰 딸 평양, 작은 아들 백금, 이화가 비문에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천연이다. 그 외 이백의 애정사로 인한 다른 자식이 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허씨의 큰 딸이 평양인가? 허씨의 작은 아들 명월노가 백금인가? 아니면 노일부인의 아들 파려가 백금인가? 또는 파려는 천금인가?

전문적인 연구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개설서나 이백 소개서 또는 평전 등은 그 저자가 연구를 직접 진행하기보다 기존의 유명 연구자(가령 安旗)의 이백시 해설이나 주석과 견해를 따르는 편이다. 그러한 해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백은 27세에 허씨와 안록에서 결혼해서 평양과 백금을 낳고 40세 무렵에 허씨가 죽자 아이들을 데리고 연주(동노)로 가서 유씨라는 여자와 잠시 같이 살았다. 아마도 翰林에서 벼슬을 마치고 동노 지방에 와서 45세 쯤에 노일부인과 결혼해 파려라는 아이를 낳고 허씨 소생의 아이들을 돌봐주길 부탁하고 천하를 유람하다가 3년쯤 뒤에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시도 썼다. 49세쯤에 종씨와 양원(개봉)에서 결혼하였고 50세 전후에는 딸인 평양을 불러서 종씨와 함께 친

20) 郭沫若은 위호의 남겨진 글에 오류가 있으며, 사실은 명월노는 딸의 이름이고 파려가 백금(伯離의 오기일 것으로 판단)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노일부인은 이백의 아들을 돌보는 이백 친구의 권속으로 이백의 아내라는 것은 위호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위호의 글은 ‘허씨가 딸이 있는데 이름이 명월노로 시집가서 죽었고’, ‘노일부인의 아들’은 허씨의 아들로 이름이 백리라는 것이다. 근래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설을 따르지 않으며, 심지어 광말약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구 원단구를 방문한다. 54세경에 위호가 이백을 방문했을 때에 딸인 평양은 이미 시집가서 죽었고, 아들 백금은 여전히 동노에 있었다. 56세경에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문인에게 부탁해 동노의 백금을 자신이 있는 남쪽으로 피난시키길 부탁했는데 그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그 뒤 참전, 패전, 투옥, 사형선고, 유배, 사면 등의 인생 역정 속에서 이백의 곁에 아들 백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61세에 죽기 1년 정도 전에 當涂(당도)에서 썼다는 「유사 씨산정(遊謝氏山亭)」에 ‘멀리서 어린 아들이 맞이하는 걸 기뻐한다(遙欣稚子迎)’고 나오는데 이 시를 근거로 백금이 어느 때인가부터(어쩌면 안사의 난 때 탈출에 성공한 이후부터) 늘 이백을 따랐다고 보기도 한다.²¹⁾ 이백이 62세 762년에 당도에서 죽은 뒤²²⁾ 30년 뒤인 792년에 백금이 당도에서 죽었고 그 25년 뒤인 817년에 범전정이라는 관찰사가 오빠가 12년 전에 집을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농부와 결혼했다는 이백의 손녀 두 사람에게 사족과의 재혼을 권했다가 거절당한다. 다시 26년 뒤인 843년에 배경이라는 비서랑이 이백의 묘를 들렀다가 5, 6년 전부터 이백의 손녀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허씨가 낳은 작은 아들이 백금²³⁾이라는 견해를 따르려면 미심쩍은 점도 있다. 백금은 792년에 죽었으니 730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이백과 비슷하게 살았다. 그런데 위호가 만난 백금의 딸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느낌이 있다.²⁴⁾ 그래서 가능한 백금의 태어난 해를 뒤로 미루려는 경향도

21) 이웃집 아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稚子の 나이가 너무 많다. 종씨가 재혼한 여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종씨와의 자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그럴 듯한 해석이다. 이 아이가 ‘천연’이라는 견해도 있다.

22) 이백이 죽은 뒤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개설서류에 잘 나오지 않거나 간략하게 이야기된다.

23) 백금이 魯에 봉해졌던 周公의 아들 魯公의 字이기 때문에 허씨가 백금을 노에 와서 낳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4) 백금의 아들과 손녀의 나이를 대략 추정해보면 817년에 막내딸이 40세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12년전에 오빠가 집을 떠난 다음에 결혼했다는 걸로 보면 나이가 더 아래라도 좋을 것이다. 막내딸을 대략 780년 정도에 낳았을 것이고 792년에 백금이 죽었으니 딸들은 아마 십대 초반부터 아버지가 아닌 오빠나 어머니가 부양했을 것이다. 792년부터 오빠가 동생들을 부양하였다면 오빠의 나이는 적게는 십대 후반부터 많게는 서른 정도까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백금의 큰아들은 아마 762년부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단순한 의문일 뿐이다. 그보다는 허씨와의 결혼생활과 그녀의 집안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있다.

‘왜 이백이 허씨와 이별(死別이든 離婚이든)하고 허씨 소생의 아이들을 본인이 데리고 안록을 떠나 그 먼 동노로 갔을까?’의 의문은 일부 연구자에게는 예전부터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²⁵⁾ 허씨와 함께 안록을 떠나 동노로 간 뒤에 허씨가 죽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아무 기록도 없고 이백 또한 아무 말이 없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며 혹시 현대적인 시각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데릴사위 결혼이든, 처가살이 결혼이든, 처가에서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던 결혼이든 상관없이, 이백과 같은 비가정적 인물이 전처소생의 자식들을 왜 아이들의 부유한 외가(경우에 따라서 친가)에 맡기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대로 왜 허씨 집안은 딸이 죽은 다음 데릴사위(또는 엇혀살던 사위)가 떠날 때 딸의 자식들을 이 못 믿을 사위와 함께 멀리 보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허씨와 함께 안록을 떠나 동노로 와서(또는 도중에) 허씨가 죽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역시 이상하다. 딸과 아들을 데리고, 또는 딸을 데리고 아들을 임신한 채로 이백과 허씨가 같이 동노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백 본인의 말대로 10년을 안록에서 허씨와 살면서도 혼자 돌아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안록을 떠났다는 것은 의외의 일이다. 이것은 이백만이 아니라 평소에 가정적인 사람이 남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다. 이백의 궁극적 목적지는 장안이었지 동노가 아니었고, 장안에 갈

775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이다. 762년은 이백이 죽은 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적어도 이백이 죽기 전에 백금이 아들을 낳았을 것 같지는 않다. 762년 이후에 큰아들을 낳고 막내딸을 780년 정도에 낳았다면 730년대에 백금이 태어났다고 보기엔 백금의 나이가 너무 많은 느낌이다.

25) 본 논문의 필자가 보기에 자식들을 함께 데려갔다고 주장하는 견해에서 내용적으로 이치에 부합하는 추측은 冈村繁의 가설이다. 그는 이백의 장인이 동노로 부임을 하러 갔기 때문에 이백이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장인을 따라 동노로 옮겼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舊唐書』에서 이백의 아버지가 산동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백의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어떤 연구자나 관련 서적도 冈村繁의 가설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冈村繁, 「李白妻妾考」, 『阴山学刊』5期, 上海市, 上海大学文学院, 2002. 26-27쪽 참조.

때도 아이들을 남에게 맡기고 떠난 사람이 동노로 가면서 아이들을(죽지 않았다면 허씨도 함께) 정말로 몸소 데리고 갔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정말로 허씨가 떠날 수 밖에 없는 어떤 일(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지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허씨까지 포함해서 안록에서 쫓겨난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 때문에 이백이 허씨와 함께 안록을 떠나 동노로 간 것이라면 허씨가 죽은 다음에 이백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왜 외가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장안에 갈 때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 뒤에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허씨까지 쫓겨난 상황이라 허씨가 죽은 다음에도 아이들을 외가로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충격적이고 비약적인 사건이 포함된다.

어떤 남자가 부잣집 딸과 결혼해서 처가에서 아이 둘을 낳고 10년 정도를 혼자 집을 자주 떠나 돌아다니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갑자기 그 5-10년쯤 뒤에 처음 결혼한 곳에서 매우 먼 곳에 역시 아이 둘과 전혀 다른 부인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본인은 여전히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돌아다닌다. 그렇다면 본 논문의 필자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은, 그 남자가 결국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다른 가정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백이 허씨와 헤어진²⁶⁾ 다음 동노로 와서 노일부인과 결혼하여 평양과 백금을 낳았다는 견해²⁷⁾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월노와 백금은 다른 사람이다. 위호에게 이백이 명월노를 부탁한다고 말했을 때, 이백이 오래 전에 허씨 집안에 남기고 떠났던 큰 딸은 시집을 가서 죽었고, 아들 명월노는 허씨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없

26) 허씨가 죽었을 수도 있고, 허씨와 협의하여 이혼했을 수도 있고, 이백이 자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며, 허씨에게 쫓겨난 것일 수도 있다.

27) 최근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이백의 성실한(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이 책임지는 등의) 정신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일부인은 아들 하나만 낳았다고 위호가 기록했는데 언급되지 않은 딸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견해를 편 연구자로는 A. 웰리, 高島俊男, 大野實之助, 楊慧傑 등이 있다.

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한 번도 명월노에 대해 시문을 남긴 적이 없는 이백이지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옛 아들이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설명에서 두 번째 아내 유씨는 허씨와 결혼 상태에서 만난 여인이거나 허씨와 헤어진 다음 잠깐 만난 여인일 것이다. 이백은 735년에서 740년 사이에 동노로 거점을 옮겼으니 이백이 장안에 벼슬을 하러갈 때에는 노일부인의 딸과 아들 모두 5살 미만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백금이 파려라는 결론을 이끌지만 ‘천연’이라는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명월노가 백금이라는 견해에서도 ‘천연’은 파려와 서로 연결된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3. 李白詩에 나타난 이백의 아내의 모습

시인의 생평은 시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되고, 시인의 작품은 시인의 생평을 재구하는 데에 역시 참고자료가 된다. 두 경우 모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백의 경우는 남겨진 시의 양이 당대의 시인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그의 생애를 탐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문제는 이백의 시가 그 내용 경향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과장성과 자기합리화 경향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매우 많은 이백의 작품이 고전 민가풍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작품의 내용에 천착하더라도 이백의 생평은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재구성된 이백의 생평을 기초로 다시 이백의 시를 감상, 평가 하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이백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에 대해 언급하거나, 또는 아내와 자식에게 쓴 시는 시 작품 자체로 감상할 수도 있고, 이백의 생애를 고찰하기 위한 자료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약간의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이백의 작품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감상과 해석이 더해진 것이 현재의 이백의 시와 생평에 대한 분석이다. 그리고 본 필자가 기본적으로 착안한 것은 이백시에서 발견된 이백의 아내와 자식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다. 그래서 이백시의 문학성에 대한 문

제는 본 논문의 기본적 관심사가 아니다.

- 1 - 아내가 등장하는 李白詩의 통계와 평가

이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시에서 자신의 가까운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 자식)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흥미롭게도 이백시에는 친척(조카, 아저씨 등)에 대한 시나 친척에게 주는 시가 많다. 출신이 불명확한 이백으로서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미 예를 들었던 「상안주배장사서」와 같은 문장을 제외하고, 이백시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해 언급했거나, 또는 자신의 아내에게 준 시는 다음과 같다.²⁸⁾

- * 「남릉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경사로 들어감(南陵別兒童入京)」, 천보 원년: 742년
- * 「숭산의 은거자 원단구의 산속 거처에 제하며(題崇山逸人元丹丘山居并序)」, 천보9년 전후: 750년 전후
- * 「아내와 이별하고 초빙에 나아가다(別內赴徵)」3수, 천보원년 전후: 742년 전후, 또는 천보15년 전후-756년 전후
- * 「추포에서 아내에게 보냄(秋浦寄內)」, 천보14-15년 전후: 755-756년 전후
- * 「스스로 아내의 편지를 대신 쓰다(自代內贈)」, 천보12-15년 전후: 753-756년 전후
- * 「추포에서 주인과 돌아가는 제비에 느껴 아내에게 보냄(秋浦感主人歸燕寄內)」, 천보12-15년 전후: 753-756년 전후
- * 「여산의 여도사 이등공을 찾아가는 아내를 전송하다(送內尋廬山女道士李騰空)」2수, 至德元年-건원원년 전후: 756-758년 전후, 또는 上元2년: 761년
- * 「아내에게(贈內)」, 천보12년: 753년 또는 開元15년: 727년
- * 「심양의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냄(在潯陽非所寄內)」, 지덕2년: 757년
- * 「넘치는 슬픔으로 위랑중에게 줌(萬憤詞投魏郎中)」, 지덕2년: 757년

28) 松浦友久, 『李白的客寓意識及其詩思-李白評傳』, 92-98쪽의 정리 재인용. 작품의 추정 저작 연대 또한 松浦友久의 기술을 그대로 인용함.

* 「야랑으로 유배가니 오강에서 아내의 동생인 종경과 이별하며(竄夜郎於烏江留別宗十六璟)」, 乾元元年: 758년

* 「남쪽으로 야랑으로 유배가며 아내에게 보냄(南流夜郎寄內)」, 건원2년: 759년

모두 11수²⁹⁾의 시³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시에서 아내에 대해 언급한 시가 3수이고, 아내에게 직접 준 시가 8수³¹⁾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시에서 언급한 아내는 모두 4째 아내 종씨이다. 아내에게 준 시에서 5수는 확실히 4째 아내 종씨에게 준 시이고, 2수는 종씨이거나 다른 아내이며 1수는 허씨, 유씨, 노일부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이백이 아내를 언급하거나 아내에게 준 시 11수 가운데에서 8수는 종씨와 관련되었고, 2수는 종씨이거나 다른 아내이고 1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종씨는 아니다. 결국 이백의 아내 관련 한시는 대부분 종씨와 관련이 있다고 평하여도 무리가 없다.

이백이 아내에 대해 언급한 시에서 한 수는 도사 친구(원단구)에게 도교 신봉자 아내를 소개하는 시로 종씨와 관련되었고, 위랑중에게 쓴 시는 아마도 십양의 옥에 갇혔을 때 쓴 것으로 그 내용에서 豫章에 늙은 아내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³²⁾ 시기적으로 종씨이며, 야랑으로 유배가면서 자신을 만나러 온 종씨의 동생 종경에게 종씨 집안에 대한 찬사를 한 시이니 당연히 종씨이다. 이 세 수의 시에서 받은 인상은 이백이 종씨 또는 종씨의 집안에 대해 敬慕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29) 3수나 2수로 구성된 연작시는 각각 1수로 계산하였다.

30) 이백의 「누명을 씻는 시로 친구에게 드림(雪讒詩贈友人)」시를 광말약은 유씨에게 결별당한 다음 이백이 친구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한 시로 해석하였다. 시의 내용에 사건의 실마리가 전혀 없이 억울한 시인과 음란, 흉포, 경박, 부도덕성 등의 못된 여인만 나오기 때문에 역대의 주석가들도 시의 해석에 곤란함을 겪었다. 그래서 최근의 여러 연구자들이 광말약의 견해가 가장 근사하다고 유씨설을 따른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본 절의 통계에는 의미가 없다.

31) 「남릉별아동입경」시를 필자는 아내에게 주는 시로 분류하였으나 제목대로 이해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시이다.

32) 이 구절의 앞구절은 ‘목릉의 관문 북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슬퍼하고(穆陵關北愁愛子)’이다. 백금이 아버지를 따라 유배지도 함께 갔다고 생각하는 주석가 가운데에는 이 슬퍼하는 아들이 ‘천연’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2- 제4부인에게 준 漢詩들

이백이 종씨에게 준 것이 분명한 6수의 한시에는 확실히 안사의 난(또는 투옥되기) 이전에 쓴 시가 2수(「추포기내」, 「추포감주인귀연기내」)이고, 투옥된 이후의 시가 2수(「재심양비소기내」, 「남유야랑기내」)이고,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시가 2수(「자대내증」, 「송내심여산여도사이등공」)이다. 이백은 종씨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함께 지낼 때 보다 혼자 돌아다닐 때가 더 많았다.

이백은 안사의 난이 발생한 756년 이전에 몇 년간 池州의 추포에서 머문 것으로 여겨지며 그의 유명한 「추포의 노래(秋浦歌)」 17수를 보면 이백은 (아내인 종씨의 집안 세력을 배경으로 하였음에도) 관직 구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포에서 실의에 빠진 생활을 보낸 것 같다.³³⁾ 그는 아마도 이곳에서 지역 유지들과 교류하거나 지방관들에게 자신을 천거했을 것이다. 이백이 추포를 떠난 다음, 또는 추포에 있을 때 안사의 난이 발생하자 이백은 문인에게 자신의 아들 백금을 피난시켜달라는 시를 주고 자신은 종씨와 함께 廬山에 숨었다가 영왕린의 초빙을 받았다고 한다.

「추포기내」와 「추포감주인귀연기내」는 모두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백이 더 젊었을 때에는 그의 시에서 거의 보기 힘든 내용이다. 이백은 지방의 작은 관리라도 할 수 있을까 돌아다녔으나 가망이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곤경에 처했다. 이백은 「추포기내」에서 오랜만(아마 3년)에 아내의 안부 편지를 받자 크게 기뻐하며 답장을 썼고³⁴⁾, 「추포감주인귀연기내」에서는 가을에 남쪽으로 돌아가는 제비보다 못한 신세라며 역시 한탄하는 글을 썼다. 이백이 자신의 신세(관직 탐구)가 힘들다며 집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시를 쓴 것은 놀라운 사건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추포기내」에서 이백 스스로 梁園(양원)이 자신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다. 이백이 안록을 대하던 태도와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백은 종씨에게 정이 깊은 것 같지만, 어쩐지 원조를 요청하는 느낌도 있다.

33) 이백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시라는 설도 있다.

34) 내용은 힘들고 늙었다는 신세 한탄 위주이다.

이백이 투옥된 이후에 쓴 「재심양비소기내」와 유배지로 가면서 쓴 「남유야랑기내」를 보면 이백은 더욱 분명하게 종씨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종씨에게 구명 운동을 부탁하는 것 같다. 「재심양비소기내」에서는 종씨에게 ‘당신은 내 어려움을 알고 울면서 관부에 들어가니 마치 고대의 열부가 조조에게 남편의 사면을 빌어 성공 한 것과 같다. 산에 올라 나를 그리워하며 탄식하니 그 슬픈 모습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시를 썼으니, 예장에 있는 종씨에게 관부에 부탁해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남유야랑기내」에서는 ‘북쪽 기러기 봄이 되어 모두 돌아가 사라지는데, 남쪽에서는 예장의 편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낭만적으로 보면 부부 사이의 간절한 감정의 표현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역시 구명 운동의 부탁이다.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시는 「자대내증」과 「송내심여산여도사이등공」이다. 「자대내증」은 松浦友久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756년 이전에 추포에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시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³⁵⁾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는데, 종씨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종씨가 이백에게 사랑과 그리움,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 시의 내용에 종씨의 할아버지가 세 번 재상을 역임하였지만 현재는 다소 쇠락하였고 그림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³⁶⁾ 즉 마치 종씨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재상의 후예로 우아한 품격에도 언제나 이백을 그리워한다고 한 것인데, 이백이 종씨의 가문의 내력을 언급한 다른 작품이 종씨의 동생 종경에게 쓴 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시의 추포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 시 역시 곤경에 빠진 이백 자신의 구명을 바라는 시라는 것이다. 다소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쉽게 긍정할 수는 없으나, 이 시가 이백이 추포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하더라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을 나타낸 시로 보이지는 않는다.

「송내심여산여도사이등공」시는 종씨가 재상 이임보의 딸이자 여도사인 이등공을 찾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쓴 시이다. 이 시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35) 시의 내용에 어떤 상인이 안휘성(大樓山)에서 와서 당신이 추포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구절이 있다.

36) 또한 이 시에 종씨가 여동생과 같이 산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백이 종씨와 결혼한 것도 데릴사위로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것은 해석자에 따라 이 시가 이백이 61세 이후 여러 이유로 결국 은거해서 도사가 되기로 결심한 종씨와 이혼한 다음 그녀를 보내며 쓴 시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이혼했다는 말이나 출가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지만 확실하게 부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재상 이임보의 여도사 딸을 찾아 가는 아내에게 ‘그대가 재상 집안의 여식으로 도를 배우고 신선을 좋아함을 찬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죽은 전 재상의 딸 이등공도 출가를 했는데 역시 재상 집안의 딸인 당신도 출가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 재상의 딸인 여도사 이등공을 만나러 가는데 당신도 재상의 집안 딸로 도를 배우고 신선을 좋아하니 서로 말이 잘 통할 것이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시의 해석도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이백이 종씨에게 이임보의 딸을 만나러 가서 이백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3- 〈贈內〉시³⁷⁾와 〈別內赴徵〉시³⁸⁾의 문제

이백이 어느 아내에게 써 준 시인지 분명하지 않은 시 가운데에서 「증내」와 「별내부징」은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두 시 모두 특정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한시 창작물이라기보다 민요적인 전형적 인물을 간략하지만 역시 상징적으로 묘사한 시에 가깝다. 즉 실제 아내에게 써 준 시라기 보다

37) “삼백육십일을 날마다 날마다 엉망으로 취해있다. 비록 이백의 아내이지만 종묘 제사를 관장하던 주태상의 처와 무엇이 다른가.(三百六十日, 日日醉如泥. 雖爲李白婦, 何異太常妻)”

38) “왕명으로 세 번 부르시니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내일 아침 이별을 하고 오관을 나서리라. 백옥의 높은 누대에게 보이지 않거든 내가 그리우면 모름지기 망부산에 오르시오.(王命三徵去未還, 明朝離別出吳關. 白玉高樓看不見, 相思須上望夫山)” “문을 나서니 아내와 자식이 억지로 내 옷을 끌면서 내게 물기를 서쪽으로 가면 언제나 돌아오나요 돌아올 때에 만약 황금의 인끈을 매고있다면 소진의 아내가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 배우지 마시오.(出門妻子強牽衣, 問我西行幾日歸. 歸時儻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 “비취로 누각을 만들고 금으로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누가 홀로 자며 문에 의지해 우는가. 밤에 차가운 등불 속에 새벽 달 질 때까지 앉아있으니 즐기 즐기 눈물이 마른 것은 초관의 서쪽이라네.(翡翠爲樓金作梯, 誰人獨宿倚門啼. 夜坐寒燈連曉月, 行行淚盡楚關西)”

는 이백시의 규정시나 악부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백의 처와 다를 바 없다는 처를 가진 주태상이라는 사람은 후한 때 종묘 제사를 관장하는 태상 벼슬을 했던 주택(周澤)이라는 사람이다. 제사 준비를 하는 齋宮에서 주택이 자주 병이 들자 그의 아내가 걱정이 되어 몰래 그의 모습을 보러 갔는데, 주택은 자신의 아내가 금기를 어겼다고 여겨 옥에 가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살아서 만나질 못하니 태상의 아내가 되었구나. 1년 360일에서 359일은 재계를 하고 하루 재계를 하지 않으면 영망이 되도록 취한다’고 하였다.

「증내」시의 이백의 아내도 어찌면 주태상의 아내처럼 남편의 건강을 염려한 것일지 모른다. 이백은 재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의 아내와 함께 할 가능성이 없다. 1년 내내 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시는 이백이 늘 술을 마신다는 것과, 이백의 아내가 이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이 시가 역대로 유명하거나 환영받은 이유는 짧고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모티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술꾼 이백과 그의 가여운 아내이다.

그런데 예술적으로, 또는 기교적으로 성공적인 이 시에서 과연 이백은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주태상의 아내가 주태상의 건강을 걱정했던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주태상이 평소에도 아내와의 정을 중요시하지 않았고 마침내 자기의 뜻에 따라 아내를 하옥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한다면 이 시는 이백의 아내를 무시하거나 조롱한 것이 된다. 주태상의 아내가 주태상을 걱정했다는 것까지 인정한다면 이 시는 이백이 아내에게 장난을 친 것이다. 주태상이 아내를 하옥시켰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만 착안한다면 이 시는 늘 떨어져 지내거나 또는 늘 술을 마시는 이백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어느 해석이 더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설은 없다. 이 시를 받은 사람은 허씨, 유씨, 종씨 가운데 하나이다. 허씨가 받은 것이라면, 신혼의 장난, 사이좋은 미안함의 표현, 또는 부부 갈등의 조롱이 모두 될 수 있다. 유씨가 받은 것이라면 거의 조롱만이 가능한 해석이다. 종씨가 받은 것이라면

미안함의 표현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 다음은 귀여운 장난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이백이 종씨를 조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³⁹⁾

다만 이 「증내」의 내용을 다시 보면, 결국 이백은 아내의 어떤 바람과 뜻도 따를 생각이 없다. 오직 술을 마실 뿐이다. 설사 익살스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백의 아내는 좌절할 것이며, 미안함의 표시라 하더라도 이백의 아내는 또한 좌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허씨, 유씨, 종씨 중에 어느 아내인지 모르겠으나, 이백이 가진 아내에 대한 마음은 결국 이백 자신 위주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별내부징」 또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백의 다른 가행체 작품과 다르지 않다. 시의 내용이 모두 다른 곳에서 익히 보았던 것이다. 각 편들의 길이는 「증내」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지만 3수가 합쳐지자 하나의 짧은 시로도 보인다. 별개의 3수가 아니라 내용이 연결되는 세 단락의 시로 이해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1단은 아내, 자식과의 이별, 제2단은 떠날 때의 당부, 제3은 여인의 그리움 정도이다.

이 시의 처음에 세 번 왕이 자신을 불렀다는 표현에서 반드시 실재 횃수가 세 번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백은 초빙을 받았고, 그 초빙의 무게가 무거워 떠날 뿐이다. 그 결과 아내와 원하지 않는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불려서 떠난다는 점에서 이 시의 제목과 잘 어울린다. 이 시는 떠나면서 아내에게 남겨준 유별시이다.

제2단은 그 내용이 상당히 극적이다. 길을 떠나는 자신을 아내와 아이들이 붙들고 이후의 일을 묻는다. 시인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 희망은 있다. 그래서 소진의 아내가 유세를 하러갔다 돌아온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남편을 아랑곳 하지 않은 일을 본받지 말라고 한다. 이 시에서 떠나는 남편을 붙드는 아내와 돌아온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 사이의 차이는 기다림의 시간 차이이고, 남편이 이룩한 성과물의 차이(황금의 인끈)이다. 이백의 시각에서 이 시를 쓰는 순간 아내는 자신의 원대한

39)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백이 허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의 작품 같다. 일반적으로는 허씨와 신훈 시절에 장난으로, 유씨와 사이가 매우 나빴을 때 싸움의 용도로, 또는 종씨와 사이가 좋을 때 미안함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편이다.

이상을 이해 못해서 앞날을 긍정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남편의 옷을 억지로 끄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편이 제시한 이상의 실재를 보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어리석은 여인은 아니다. 즉 현재의 아내는 아직 소진의 아내와는 다르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망부산에 오를 여자이지 남편을 무시하고 비웃을 여자는 아니다. 그런데도 왜 이백은 굳이 소진의 아내와 자식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사용했을까?

제3단은 앞 두 단락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앞 두 단락이 민간의 악부시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부분은 궁정시나 규정시와 비슷하다. 이전까지 여인(아내)이 있던 공간이 갑자기 화려해져서 달빛 속에 정말로 아름답지만 차갑고 쓸쓸한 것은 그 속의 여인의 마음과도 같다. 만약에 이 시가 아내에게 준 시가 아니었다면, 현재 이 시에서 노래하는 장소와 여인을 시인이 장안이나 궁궐에 와서 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여인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소진의 아내를 닮지 말라고, 그래서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당부받던 아내는 갑자기 선녀처럼 변해서 지고지순하게 남편을 기다리는 고급스러운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보통은 희망에 기뻐해야할 것 같은 이런 종류의 시가 마치 슬픈 애정시처럼 변했다.

이 시를 종씨에게 준 시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왕이 여러 차례 부르자 나갔다는 시의 처음 부분과 여인의 거처와 여인의 모습이 풍기는 고급스럽고 환상적인 사랑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백은 영왕린의 초빙을 몇 차례 사양했다가 다시 받아들였는데 이는 고상한 선비가 관직을 수락하는 방법이다. 물론 현종이 이백을 불렀을 때에도 그는 천자가 자신을 불렀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자신이 천자의 요청을 사양했다는 식으로 모습을 꾸미지는 않았다. 또한 이백의 다른 아내에게서 제 3수의 우아한 분위기를 지니는 그리움과 슬픔을 찾는 것은 어렵다. 유씨와 노일부인은 아예 불가능하고, 허씨라면 가능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백이 천자의 소환으로 벼슬을 하러 장안에 갈 때 허씨와 작별했을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제2수, 제2단의 평민적이거나 민가적인 분위기는 이 시를 받는 아내가 명문의 후예라는 것과 다소 모순된 상황이다. 세 수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이고 그래서 가장 솔직하게 느껴지는 부분 -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니 나

를 무시하지 마시오 - 이 사실은 도리어 비현실적인 것이다. 처음 떠나면서 자신이 그리우면 망부산에 오르라고 하고 마지막 결말에서 우아한 여인은 그리움으로 밤새 눈물 흘릴 것이라고 한 사이에 일련의 모순된 언어를 배치시킨 것이다. 본인은 현재 벼슬을 못했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고, 아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백의 이 큰소리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불안한 내심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는 종씨에게 준 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만 이백은 반란군인 영왕린의 초빙을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고, 스스로 일을 마치면 제후에 반열(황금의 인끈)에 오를 것처럼 말하였다. 영왕린이 패한 뒤, 이백은 자신이 무고하게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왕린이 천자의 신하일 것이라고 오인하였고, 그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참여하였고, 또한 협박에 의해 억지로 영왕린을 찬양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도 협박에 의해 글을 썼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4- 〈南陵別兒童入京〉시의 문제

〈南陵別兒童入京〉시는 이백이 741년 또는 742년경에 장안으로 관직을 받으러 떠나다가 도중에 자식들이 있는 남릉에 들려서 쓴 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릉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안휘성의 남릉으로 이해한다.

白酒新熟山中歸
黃雞啄黍秋正肥
呼童烹雞酌白酒
兒女嬉笑牽人衣
高歌取醉欲自慰
起舞落日爭光輝
遊說萬乘苦不早
著鞭跨馬涉遠道
會稽愚婦輕買臣

탁주 막 익을 때 산 속으로 돌아오니
기장 쪼는 노란 닭이 가을이라 정말 통통하다.
아이 불러 닭 삶고 탁주를 따르니
아들딸은 장난치고 웃으며 내 옷을 당긴다.
높게 노래하고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위로하고
일어나 석양에 춤을 추며 그 빛을 다룬다.
萬乘天子께 유세함이 시간이 늦었다 괴롭지만
채찍 잡고 말에 올라 먼 길을 떠나려나.
회계의 어리석은 아내는 朱買臣을 업신여겼지만

余亦辭家西入秦	나 역시 집을 떠나서 서쪽으로 秦으로 들어간다.
仰天大笑出門去	하늘 우러러 크게 웃고 문을 나서 떠나니
我輩豈是蓬蒿人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쭉대 속에 살겠는가.

「별내부정」과 몇 가지 비슷한 심상이나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별내부정」도 이 시와 같은 시기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면서 옷을 당기는 아내와 아이들과 달리 「남릉별아동입경」시의 아들딸은 상황 자체의 판단을 못하고 그저 아버지를 보는 게 좋아서 웃고 장난치며 아버지 옷을 당긴다.

서쪽으로 벼슬을 하러 가는 것 역시 똑같으나 「별내부정」의 시인은 그 내심이 어떠한지, 자신의 이상적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릉별아동입경」의 시인은 자신의 유쾌하지 못했던 상황과 심정적인 초조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별내부정」의 시인과 아내는 결국 슬픈 애정시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남릉별아동입경」의 시인은 단호하고 비장한 결의에 차서 스스로에게만 신경을 쓴다.

이 「남릉별아동입경」시는 이백의 아내와 자식의 정체를 판정하는 데에 몇 가지 도움을 준다. 이 시는 제목만 보면 아이들에게 留別한 시이다. 그러나 시의 내용에서 보듯 아이들은 이백의 시를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백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시인의 어조 역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라기엔 지나치게 비장하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 이 시는 아이들에게 남기는 작품은 아닐 것 같다.⁴⁰⁾

이 시의 청자는 이백의 아내일 수도 있고, 이백 자신일 수도 있다.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심정과 각오를 밝힌 시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결의와 각오를 다짐한 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오직 한 가지만 가능한 점이 있다. 그것은 이백의 아내, 즉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시에 나오는 회계의 어리석은 아내-회계우부-에 대해 현

40) 대략 이 시로부터 5, 6년쯤 뒤에 이백이 아이들에게 「奇東魯二稚子」시를 주었으니 「남릉별아동입경」 또한 아이들에게 쓴 시가 반드시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가능성이 많이 부족할 뿐이다.

재 이백이 매우 큰 불만을 표시하고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백 본인은 주매신이 된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이치에 근거해 불가능한 해석이 있다. 가령 곽말약은 이 회계우부에 근거하여 두 번째 부인 유씨가 회계지역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하였다. 곽말약처럼 유씨가 회계지역 출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이 시가 헤어진 유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여기는 연구자들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조금 이상하다. 자신의 아이들과 이별하며 남긴 시에서, 자신의 아이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등장하게 만든 아내가 정작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시의 구조를 손상시킨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모욕이다.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즐겁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또한 기쁘다. 이 때 생각나는 사람은 아이들의 친어머니이지 계모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 전처의 자식들은 기뻐하기만 한다고 말한다면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이백이 이런 부분에 전혀 지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처소생의 아이들과 계모인 후처가 함께 나오는 시를 전처소생의 아이들과 이별하며 남기는 시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의 아이들은 이 시의 아내의 친자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해석은 허씨와 허씨의 아이들, 유씨와 유씨의 아이들, 노일부인과 노일부인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유씨의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허씨와 노일부인만 남는다. 그리고 이백이 741년 또는 742년 이 시를 지었을 때 허씨가 남릉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⁴¹⁾ 허씨는 이미 죽었거나 또는 이백과 헤어졌다. 그래서 이 시의 가능한 해석은 우선 다음과 같을 것이다. ‘허씨가 낳은 아들과 딸이 이백과 함께 즐거워 할 때 이백은 아이들만 남겨두고 (죽거나 이혼으로) 떠나버린 허씨를 생각한다.’ 또는 ‘노일부인이 낳은 아들과 딸이 이백과 함께 즐거워 할 때 이백은 자신을 이해

41) 冈村繁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의 부인은 허씨다. 冈村繁 이외에 이 시의 부인이 허씨라고 파악하는 견해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논문 주석 25번 참조.

못하는 답답한 노일부인을 떠올린다.’

필자는 앞에서 허씨 없이 아이들만 동노에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남릉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이들만 남릉에 있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필자의 의심과 상관없이 정말로 허씨의 아이들이 남릉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허씨는 회계우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이백이 허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백이 허씨의 아이들만 데리고 동노로 갔거나 또는 허씨와 같이 갔는데 허씨가 죽은 뒤에는 이백 혼자 아이들을 책임졌다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 쪽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아이들은 노일부인이 낳은 아이들이다. 허씨가 낳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지 전혀 모르기에는 나이가 더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어머니인 노일부인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백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이백이 판단하기에 노일부인은 식견이나 지혜가 부족한 시골 여자일 수도 있다. 물론 회계우부와 주매신의 이야기는 아내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의 토로가 아니라 본인의 순조롭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대한 자조적인 탄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백은 노일부인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고 언제나 동노에 있는 아이들만 그리워했다. 이로부터 그가 노일부인을 중시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4. 李白詩에 나타난 이백의 자식의 모습

- 1 - 자식에 대한 李白의 시문과 자식에게 직접 준 李白詩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백의 아들과 딸에 대해선 역사적 기록과 이백 자신의 언급에 얼마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록에 근거하여 이백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판단하는 연구는 결국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절대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백시를 살피는 것은 그의 아내에 대해 살피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백에 대한 자료는 이백시 뿐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백의 아내와 관련하여 검토한 이백시를 제외하고 이백시

에서 자식을 언급하거나 직접 자식에게 준 시는 다음과 같다.⁴²⁾

- * 「동노의 두 어린 자식에게 보낸다(寄東魯二稚子)」, 천보6-9년 전후: 747-750년 전후
- * 「동노로 가는 양연을 전송하다(送楊燕之東魯)」, 천보5-7년 전후: 746-748년 전후
- * 「소삼십일이 동노로 가는 걸 전송하며 겸하여 어린 아들 백금의 안부를 묻다(送蕭三十一之魯中兼問稚子伯禽)」, 천보6-9년 전후: 747-750년 전후
- * 「무악에게 드리다(贈武十七諤,并序)」, 지덕원년: 756년
- * 「친구가 오사모를 주신 것에 답하다(答友人贈烏紗帽)」, 천보2년: 743년 또는 지덕원년: 756년
- * 「문 앞에 거마를 타고 온 손이 있어(門有車馬客行)」, 지덕원년-건원2년 전후: 756-759년 전후
- * 「최재상께 바치는 백 가지 근심의 글(上崔相百憂章)」, 지덕2년: 757년
- * 「사씨산의 정자에 가다(遊謝氏山亭)」, 상원2년 전후: 761년 전후

그런데 이 중에서 「문유거마객행」은 악부시로 언급된 자식이 이백의 자식일 가능성이 적고, 「답우인증오사모」도 신선의 동자와 같은 아이가 나오니 역시 별 의미가 없으며, 「유사씨산정」에 나오는 어린 아들 역시 시기적으로 이백의 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이백시에서 이백이 자신의 자식에 대해 언급한 시는 4수가 되며 직접 자식에게 주는 시는 1수이다. 그 분량이 아내와 관련된 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다. 아마도 이백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적은 수량의 이백시들은 오직 평양과 백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평월 노나 파려, 또는 천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이백이 동노에 온 이후에 평양과 백금을 낳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백시에서 언급한 백금의 추정 나이가 허씨가 낳았다는 미지의 평월노 보다 어린 것으로 판단한다.

42) 松浦友久, 앞의 책

「송소삼십일지도중겸문치자백금」에서 이백은 ‘우리 집⁴³⁾은 사구(沙丘) 부근에 있는데 삼년을 돌아가지 못해 그저 애만 끊긴다네. 그대가 가서 백금자를 만나면, 응당 작은 수레를 타고 양을 몰고⁴⁴⁾ 있을 것이네’라 하였다. 대략 이백의 아들 백금자가 6-8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송양연지동노」에서 이백은 ‘두 자식이 노문 동쪽에 있는데 헤어진 것이 이미 여러 해 되었다. 그대가 여기서 떠나니 나도 몰래 눈물이 샘처럼 흐른다’고 하였다. 이 시가 「송소삼십일지도중겸문치자백금」시와 비슷한 시기 또는 조금 일찍 지어졌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이백은 그의 문인이라는 무악에게 백금을 동노에서 구출해 줄 것을 부탁한다. 「중무십칠악, 병서」를 보면 이백은 백금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걱정 때문에 애가 끊긴 원숭이와 같다고 한다. 안사의 난은 756년에 발발했는데 만약 백금이 평월노라면 역시 누구에게 부탁해서 탈출시킬 나이가 아니다. 어쩌면 백금과 다른 가족을 함께 탈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악을 보냈을 수도 있으나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이백이 심양의 감옥에 갇힌 다음 구원을 요청하며 보낸 「상최상백우장」에 ‘한 가족이 별처럼 헤어져서, 두 아이를 풀 속에 버려두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 두 아이는 평양⁴⁵⁾과 백금이다. 아직 20세가 안된 어린 아이들이다.

-2- 〈寄東魯二稚子〉시의 검토

이백은 비록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단 한 수의 시를 주었을 뿐이지만, 이 한 수의 시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동노의 두 어린 자식에게 보낸다(寄東魯二稚子)」在金陵作(금릉에서

43) 이백이 자신의 집이 동노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

44) 『世說新語』에서 인용한 衛玠의 고사로 위계는 7,8세 때에 낙양 시장에서 백양이 끄는 수레를 탔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백금이 양수레를 타고 놀 정도로 컸을 거라는 의미가 된다.

45) 평양을 허씨의 큰 딸로 보는 견해에서는 당연히 두 아이를 백금(평월노)과 꾀려라고 해석한다. 허씨의 딸이 여전히 살아서는 안된다.

쓰다)

吳地桑葉綠	오땅의 뽕잎은 푸르러졌고,
吳蠶已三眠	오땅의 누에는 이미 세 번 잠을 잤다.
我家寄東魯	우리 집은 동노에 맡겨졌는데 ⁴⁶⁾
誰種龜陰田	누가 우리 밭에 씨를 뿌릴까?
春事已不及	봄의 작업은 이미 미치질 못했으니
江行復茫然	배를 타고 가려해도 다시 망연자실하다.
南風吹歸心	남풍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불어와
飛墮酒樓前	우리 집 근처 주루 앞까지 날려주었다.
樓東一株桃	건물 동쪽의 한 그루 복숭아나무
枝葉拂青煙	가지와 잎이 푸른 연기를 덮고 있다.
此樹我所種	이 나무는 내가 심은 것으로
別來向三年	이별한 것이 삼년이 되어간다.
桃今與樓齊	복숭아나무는 이제 건물과 같은 높이가 되었는데
我行尚未旋	나는 길을 떠나 여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嬌女字平陽	어여쁜 딸은 평양이라 하는데
折花倚桃邊	꽃을 꺾어 들고 복숭아나무 옆에 기댄다.
折花不見我	꽃을 꺾어도 내가 돌아오는 것 보이지 않아
淚下如流泉	눈물이 흐르니 흐르는 샘과 같다.
小兒名伯禽	작은 아들은 이름이 백금인데
與姊亦齊肩	누나와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한다.
雙行桃樹下	같이 복숭아나무 아래를 다니는데
撫背復誰憐	누가 등을 쓰다듬으며 어여뻐 여겨줄까.
念此失次第	이를 생각하니 마음은 혼란스러워
肝腸日憂煎	간장은 날로 근심에 타들어간다.
裂素寫遠意	비단을 찢어 멀리 뜻을 써서
因之汶陽川	인하여 문양의 시내까지 이르리라.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이백은 여러 시에서 오직 자기 입장에

46) ‘집이 동노에 기속한다’는 표현이 이백이 가족을 데리고 안록에서 동노로 왔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다. 필자가 보기엔 무리한 주장이다.

근거하여 남의 심리 상태나 상황처지를 추측하거나 단정하였고,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 시 역시 이백이 상상으로 동노의 집과 딸과 아들의 상황을 쓴 것이다. 당연히 이 시를 쓸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백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시의 대부분의 내용 또한 전형적이며 비구체적이다. 그러나 이백시의 특징이자 장기는 이처럼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심상과 표현을 사용하여 고유의 빠르고 자연스러운 내용 전개를 진행하고 여기에 익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내용적으로나 수사적으로) 결정적인 표현을 더해서 다른 사람의 시에서는 보기 힘든 (감동적이거나 특이한) 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백은 실제로 심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복숭아나무를 형상화하여 시에 구체성과 진실성의 착각을 가져왔다. 여기에 (아버지의 소망이자 분신인 듯한) 꽃을 따지만 그 꽃을 주고 싶은 아버지가 오지 않아 눈물 흘리는 딸과 그런 누나를 따라 다니는 제법 자란 남동생이 돌봐줄 사람 없이 (아버지가 심은) 복숭아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는 상상을 한다.

安旗와 같은 연구자는 ‘누가 등을 쓰다듬으며 어여뻐 여겨줄까(撫背復誰憐)’의 구절에서 평양과 백금이 (아버지는 현재 타향에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고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평양과 백금이 허씨의 자식이라는 것이다.⁴⁷⁾ 여러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를 정도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 구절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다. 엄마가 옆에 있었다라든가 이백이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엄마하고 잘 놀거라’라고 말했을 리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은 평양과 백금이 고아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백금이 누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거라는 구절에서 백금의 나이를 15세 정도로 추측하는 일본의 연구자도 있다. 아마도 일본은 남녀 청소년의 표준키가 18세 여자와 15세 남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절대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많은 이백시와 비슷하게 이 시를 판단할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한 까닭이다.

47) 「남릉별아동입경」의 아이들이 허씨의 아이들이고 허씨는 이미 죽었다는 가정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5. 結論-李白詩를 통해 본 李白의 아내와 자식의 정체에 대한 의문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현재의 주된 연구 경향은 평양과 백금이 허씨의 자식이며 명월노와 백금은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노일부인의 아들 파려는 천연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실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백 본인도 중시하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지한 평양과 백금은 노일부인의 자식이며 허씨의 딸과 아들 명월노는 별개의 인물일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다. 모든 연구 경향은 각기 그 존재 근거를 가진다. 평월과 백금이 노일부인의 자식이라는 견해가 최근 지지를 받지 못한 객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허씨의 큰 딸과 명월노도 두 사람이고 평양과 백금도 두 사람이다. 평양과 백금이 노일부인의 자식이라면 위호가 노일부인에게 (동생인) 아들 하나만 있다고 말한 것은 이상하다. 백금과 천연도 두 사람이다. 이백이 백금을 그토록 아낀 것은 백금이 (정실부인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백금의 伯은 본래 장자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니 백금은 허씨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유씨는 성격이 나쁘고 자질이 부족한 여자라 이백과 이별하기에 마땅했을 것이다. 이백과 이별할 수 있는 여자는 이 부족한 여자 하나면 충분하다. 즉 이백은 서역 출신이라 중원의 풍습에 익숙하지 않거나 중원의 풍습과 다른 풍습을 지녔고, 그래서 데릴사위와 같은 체면 문제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처갓집에서 쫓겨나가거나 정부인에게 이별을 당하거나 자신이 낳은 (정실의) 아이들을 책임 지지 않을 정도의 부도덕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아니다. 만약 이백이 불성실한 결혼 생활로 처가에서 쫓겨났고, 자신의 자식들을 외면한 파렴치한 이었다면, 이백이 술과 여자를 지나치게 즐긴 것은 당시 상황에서 흠이 아니라 이백을 변호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해해주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로 평양과 백금이 노일부인의 자식일 것이라는 주석가 가운데에는 이백의 이러한 생활 태도를 비난한 사람도 있었다.

시 작품에 반영된 외부 사실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시에 반영된 시적

진실이다. 역사적 인물 이백에 대해 알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오직 이백시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백시에 반영된 시인 이백의 모습이 이백시가 아닌 다른 기록과 차이가 난다면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지 다시 비교해야 한다. 물론 다른 기록과 이백시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비교 결과 역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다만 문학작품으로 받아들여야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문학작품을 문학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 자료로만 이해한다면 마침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백의 아내가 누구이고 아들이 누구이며 이들은 언제 같이 살았고 언제 헤어졌는지의 문제가 본래 이백시의 문학과 무관하게 시작되었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까지 이백시의 문학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백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과거의 객관적 해석에는 현대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백의 아내와 자식에 대한 탐구 역시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이백시를 감상하는 동안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예술적 감동의 차이 까지도 만들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다른 경험도 체계화하고 분류하고 싶어진다. 보다 잘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이백의 아내와 자식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고, 일천 수가 넘는 이백의 시에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들이지만, 이백시를 읽었을 때 사람들의 설명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백시에 등장하는 이백의 자식에 대한 기록 내용에 근거했을 때, 명월노가 백금이라면 백금의 나이는 너무 많을 가능성이 크고(시에서의 나이도 많았고 범정전의 기록에 나오는 손녀의 나이와 비교해도 나이가 많다), 허씨가 죽은 다음 이백이 허씨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것은 불성실한 아버지와 성실한 아버지 모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며, 전처의 자식들과 이별한다면서 후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이백이 종씨부인에게 표현하는 애정의 태도는 비교적 저자세에 가깝고, 그런 그녀에게 전처의 큰 딸을 무작정 맡기는 이백의 태도 또한 이해하기 힘

들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은 평양과 백금이 노일부인의 자식이라는 최근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견해이다. 그러나 결국 기존의 최소한 역사적 자료인 위호와 이화의 글과 이백이 남긴 시문의 내용 사이에는 서로 극복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2000.
- 王琦, 『李太白全集』, 臺北: 華正書局, 1991
- 詹福瑞, 劉崇德, 葛景春 等, 『李白詩全譯』, 石家莊市: 河北人民出版社, 1997.
- 詹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 久保天隨, 『李白全詩集』, [續國譯漢文大成], 東京: 日本圖書, 1978.
-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80.
- 金壽聲, 朱文彩 編, 『李白資料彙編, 唐宋之部』, 北京: 中華書局, 2007.
- 裴斐, 劉善良 編, 『李白資料彙編, 金元明清之部』, 北京: 中華書局, 1994.
- 李珍華, 傅璇琮 撰, 『河岳英靈集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2.
- A. 웰리 著, 이석호·장기근 역, 『달과 거울 속의 詩仙-李白的 詩』, 서울: 삼성출판사, 1985.
- 郭沫若 著, 임효섭, 황선재 옮김, 『李白과 杜甫』, 서울: 까치, 1996.
- 다카시마 도시오 지음, 이원규 옮김, 『이백, 두보를 만나다』, 서울: 심산, 2003.
- 張基權, 『李太白評傳』, 서울: 乙酉文化史, 1971.
- 葛景春, 『李白與中國傳統文化』, 臺北: 群玉堂出版公司, 1991.
- 葛景春, 『李白傳』, 鄭州: 鄭州大學出版社, 2002.
- 康震, 『康震品李白』, 北京: 東方出版社, 2006.
- 馬鞍山市李白研究會 編, 『中日李白研究論文集』, 北京: 中國展望出版社,

1989.

- 馬鞍山李白研究所, 中國李白研究會 合編, 『20世紀李白研究論文精選集』, 西安: 太白文藝出版社, 2000.
- 范震威, 『李白的身世, 婚姻與家庭』,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2.
- 謝楚發, 『李白的人生哲學·詩酒人生』, 臺北: 揚智文化, 1996.
- 松浦友久 著, 柳維治, 尙永亮, 劉崇德 譯, 『李白的客寓意識及其詩思-李白評傳』, 北京: 中華書局, 2001.
- 施逢雨, 『李白生平新探』, 臺北: 臺灣學生書局, 1999.
- 安旗, 『李白研究』, 臺北: 水牛圖書出版事業有限公司, 1996.
- 安旗, 『李白年譜』, 臺北: 文津出版社, 1987.
- 安旗, 『李太白別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 楊慧傑, 『詩中的李白』, 臺北: 東大圖書公司, 1988.
- 郁賢皓 主編, 『李白大辭典』, 南寧市, 廣西教育出版社, 1995.
- 郁賢皓, 『天上謫仙人的秘密-李白考論集』, 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97.
- 李紹先, 李殿元 共著, 『李白懸案揭秘』,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6.
- 張書城, 『李白家世之迷』, 蘭州大學出版社, 1994.
- 陳文華, 『詩酒李太白』, 北京: 中華書局, 2004.
- 黃玉峰, 『說李白』,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7.
- 大野實之助 主編, 『改訂增補李太白研究』, 東京: 有明書房, 1971.
- 岡村繁, 『李白妻妾考』, 『陰山學刊』5期, 上海市, 上海大學文學院, 2002.

논문접수일: 2012. 02. 02.

심사완료일: 2012. 02. 29.

게재확정일: 2012. 03. 16.